

스페셜

10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역대월드컵의 한국축구 수비는?



홍명보

김태영

최진철

홍명보·김태영·최진철 역대 최강 ‘변형 스리백’

2002대회 이전엔 정보력 부족
강팀들 만나 번번이 예선탈락

한국은 9회 연속 포함 총 10회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했던 게 수비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6년 멕시코대회의 상대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였다. 버거운 상대였다. 결과는 1무2패, 4득점7실점. 수비조직력은 엉성했다. 상대 공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5백이었다. 허정무 조민국 정용환 박경훈 조영증 등 이름만 들어도 경쟁한 선수들이 후방을 지켰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맨투맨 마크에도 한계가 있었다. 정보가 없어 상대 전력을 알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벨기에 스페인 우루과이와 한조에 속한 1990년 이탈리아대회에서는 대항 4학년인 홍명보가 깜짝 발탁됐다. 결과는 6실점1득점, 3패로 역시 예선탈락. 신예 홍명보와 박경훈 정용환 최강희 구상범 정종수 윤덕여 등이 수비진을 구성했지만,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패착이 되풀이됐다.

3회 연속 본선에 오른 1994년 미국대회는 2무1패(4득점 5실점)로 탈락하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 전력에 많이 안정됐다. 홍명보가 최후방을 지킨 가운데 신홍기 최영일 박정배 김판근 등이 바로 위에서 4백을 서는 형태였다. 스페인 독일 등 강호를 상대로도 가죽지 않았다. 다만, 선수들의 국제경험이 적은 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였다.

아시아 예선에서 역대 최고 성적(9승2무1패, 28득점 8실점)을 올린 1998년 프랑스대회는 첫 경기 멕시코전 역전패로 모든 게 꼬였다. 1무2패, 2득점9실점으로 예선 탈락.

안방에서 열린 2002년 대회는 4강이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을 맞춘 홍명보-김태영-최진철의 변형 3백은 역대 최강의 조직력이었다. 노련함과 파워, 근성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다.

세대교체가 본격화된 2006년 독일대회에서는 노련한 최진철을 중심으로 3백과 4백을 번갈아 썼는데, 홍명보 은퇴 이후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대회부터 4백의 가능성을 실험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2010년 남아공대회는 한국축구의 저력을 보여준 대회였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1승1무1패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원정 16강에 진출했다. 대회 개막 직전 광대휘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며 우리가 찾지만 센터백 조영훈과 이정수가 센스 있는 플레어로 수비진을 이끈 게 큰 힘이 됐다.

브라질에서 열린 2014년 대회는 김영권과 홍정호가 불박이 센터백이었고, 좌우에 윤석영과 이용이 뛰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수비조직력의 문제뿐 아니라 잇따라 나온 개개인의 실수가 화근이었다.

최현길 전문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 월드컵 신화 재현? 전문수비수 육성부터 고민하자



월드컵 개막을 2개월여 앞둔 가운데 한국대표팀의 수비력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전문 수비수 발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국과 폴란드의 평가전.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빅맨↯수비수…‘위치선정’ 능력자를 뽑아라

덩치 큰 강호들과 월드컵서 한 조
대표팀에 필요한 건 수비조직력

수비수 조건중 첫째는 위치선정
최적의 인제 발굴 변화의 첫걸음

축구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상대의 비수가 양방 깊숙이 박힌다. 90분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팀은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공격과 수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공격과 수비의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 수비에 방점을 찍고 싶다. 일단 수비가 튼튼해야 공격할 기회도 생기는 법이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는 메시지는 승부의 세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지를 대변해준다.

한국축구대표팀의 최대 불안요소는 수비다. 다른 쪽에 비해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은 수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3월 유럽 원정에서도 같은 고민을 반복했다. 유럽으로 떠나기 앞서 신 감독은 “수비라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한다”면서 “(월드컵에서 만날) 스웨덴이나 독일은 신체조건이 우리보다 월

등한데 밀고 들어왔을 때 수비라인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했다. 특히 폴백의 제공권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 걱정이 평가전에서 현실이 됐다. 북아일랜드(1-2 패) 폴란드(2-3 패)전에서 수비(조직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정 수비수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게다가 3백과 4백 운영을 두고 감독의 전술 능력을 문제 삼았다. 솔직히 상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했던 건 고문에 가까웠다.

귀국길에 신 감독은 “수비 문제를 느끼고 있다. 5월 최종 소집 때 조직력 훈련을 한다”며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3백 또한 플랜B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당면 문제를 두고 감독이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알가알부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와서 대표팀을 흔드는 건 이적 행위에 가깝다. 이왕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격려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대표팀 수비의 근원적인 문제는 개인의 능력 문제라는 점이다. 모자라는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안 되면서 무너진 것이다. 특히 수비수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치 선정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불안감을 키웠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가장생활을 하는 동안 대표팀의 수비력에 대한 비판을 수도 없이 해왔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대표팀의 수비력은 못마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4년 뒤 이맘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번 대표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월드컵에서도 감독들 대부분은 수비 때문에 힘들어했다. 1954년 이후 32년 만에 본선에 오른 1986년 멕시코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월드컵까지 우리가 낙담한 마음에서 지켜본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상대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져 ‘선 수비, 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감독들의 고민은 깊었다. 홍명보-김태영-최진철로 이어진 3백으로 완벽한 조직력을 보였던 2002년 대회는 예외라고 하지만, 사실 그 때는 홈그라운드인데다 몇 개월간의 합숙과 수많은 평가전을 통해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조직력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월드컵을 앞두고, 또는 월드컵을 치르면서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만 골몰했다. 수십 년간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없이 감독 또는 선수에게 손가락질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대표팀이 흔들리자 유소년 정책 등 장기플랜을 세우며 뿌리부터 튼실하게 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통산 10번이나 월드컵 무대를 밟는 우리도 이제

그 챗바퀴에서 벗어날 때다.

이번 유럽 원정 평가전을 지켜본 한 축구인은 이런 말을 했다. “이제부터라도 전문 수비수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한다. 그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멀리, 길게 보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선수육성이 먼저라는 얘기가. 수비 자원을 길러내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과실만을 바라보는 건 욕심일 뿐이다. 투자를 해야 한국축구가 살 수 있다. 그 축구인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단지 신체조건을 보고 수비수를 뽑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수비수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건 위치선정이다. 그런 유망주는 따로 있다.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 그게 우리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6월이면 러시아 무대가 펼쳐진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축구의 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늘거나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운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월드컵도 아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월드컵은 열린다. 미래의 월드컵을 위해 지금 당장 전문 수비수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몇 년 뒤에도 수비 타령을 하고 싶진 않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탈 LG 효과’ 지우개는 팬들이 공감하는 감동

정재우의 오버타임

3연패 부담 이겨내고 반전의 2승
류 감독·김현수가 보여준 평정심
가르시아 효과 등 희망 요소 충분

LG 트윈스는 수많은 팬들의 애증이 교차하는 팀이다. 1990년대 초반 2차례의 한국시리즈 우승 덕분에 일찌감치 서울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터를 잡았고, 이는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프로야구 원년 구단인 MBC 청룡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2002년을 끝으로선 좀처럼 한국시리즈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자 팬들의 실망 또한 커지기 시작했다.

‘흑역사’로 불리는 침체기 동안 LG에는 몇 가지 부정적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탈 LG’ 효과다. LG에선 부진하다도 이적하면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하나둘 늘면서 생긴 말이다. LG 프런트에나, 열성적 팬들에게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LG로선 결코 달갑지 않은 이 단어가 올 시즌에는 개막 직후부터 튀어나왔다. 하필이면 직전 시즌인 지난해 11월 방출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들 때문이다. 3월 25일 마산에선 NC 유원



지난달 28일 넥센전에서 LG 소속으로 첫 홈런으로 시즌 첫 승을 이끈 김현수(왼쪽)와 류중일 감독.

뉴시스

상이 한때 동료였던 LG 타자들을 1.1이닝 무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막고 팀의 7-1 승리에 기여했다. 29일에는 지난겨울 일부 LG 팬들의 릴레이 항의시위까지 촉발시킨 베테랑 정성훈이 광주 삼성전에서 KIA에 복귀한지 4경기 만에 시즌 1호 홈런을 포함한 3안타 2타점의 맹타로 단연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반면 타 구단 출신으로 LG 유니폼을 입은 뒤 더 빛을 발한 선수는 극히 드물다. 프리에이전트(FA)든, 외국인선수든 이상하리만치 LG로 옮겨와서는 옛 명성과는 동떨어진 족적을 남겼다. 심지어는 과거 다른 팀에서 ‘왕조’를 열었던 명장조차 LG 지휘봉을 잡은 뒤에는 쓸쓸하게 퇴장했다.

LG가 개막 3연패에서 벗어난 3월 28일 고척

스카이돔. 경기 전 LG 류중일 감독은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살구아재’란 별명처럼 평소에도 류 감독의 볼은 흥조를 띠곤 했지만, 이날은 ‘느낌상’ 좀더 강했다. 연장 10회 접전 끝에 끝내기안타를 맞고 4-5로 넥센에 패한 전날 경기의 잔상 때문이다. 속은 쓰라렸지만, 류 감독은 취재진의 곤란한 질문에도 큰 목소리로, 성의껏 답했다.

그 시각 덕아웃 한편에선 김현수가 홀로 새도 스윙에 집중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스스로 타격 메커니즘을 점검하느라, 평소에도 진지하지만 한 그의 표정은 잔뜩 더 굳어 보였다. 4년 총액 115억원에 LG와 FA 계약을 한 김현수는 이날 경기 전까지 13타수 2안타의 빈타에 허덕이고 있었다. 팀에서 고대하는

장타는 고사하고 단타 2개에 삼진만 5개를 당하고 있던 그의 심정은 미루어 짐작이 갔다.

이날 경기에서 LG는 김현수의 장타 2방을 앞세워 9-3 완승을 거뒀다. 4-2로 쫓긴 4회 김현수의 1타점 2루타 때 짧은 기합을 불어넣었던 류 감독은 8회 다시 2점포를 터트린 김현수가 덕아웃으로 돌아오자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줬다. 류 감독이 LG 사령탑으로 거둔 첫 승은 이렇듯 역시 LG 소속으로는 이날 첫 타점과 첫 홈런을 한꺼번에 신고한 김현수에 힘입은 바가 컸다.

2일 현재 LG는 3승5패를 기록 중이다. 개막 직전의 기대감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한 편이다. 물론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6개월 뒤 LG의 자리가 어디쯤 놓여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개막 3연패 동안 드러난 대로 취약한 볼펜과 내야가 시즌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디펜딩 챔피언 KIA를 상대로 짜릿한 위닝 시리즈를 거둔 데서 확인되듯 긍정적 요소도 적잖다. 무엇보다 새 외국인타자 아도니스 가르시아의 9안타 5타점 활약이 반가웠다.

그럼에도 LG를 둘러싸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조금만 빼앗해도 다른 한편에선 ‘탈 LG’ 효과와 같은 부정적 단어가 회자되는 현실이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떠나보낸 선수들도 잘 풀리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팬들이 납득할 만한(혹은 감동할 만한) 성적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그날 류 감독과 김현수가 보여준 것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아직도 136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문기자 jace@donga.com